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vs 카카오 '카나나'... 공공서비스 경쟁

## 네이버 'AI 국민비서'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AI 브리핑 기술로 즉시 답변 제공

## 카카오 '국민비서 구베'

카톡 대화창서 공공서비스 이용  
세이프가드 모델로 안정성 확보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서비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I 국민비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 경쟁에 나섰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AI 기반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등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에이전트 형태의 AI 국민비서를 공개했다. 이용자는 네이버 앱 메인 '마이' 탭의 AI 국민비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조화와 예약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은 네이버 전자증명서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연계해 구현했다.

이용자가 "등본 발급해줘"와 같은 요청을 입력하면 AI가 필요한 증명서를 안

내하고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은행 등 사전에 등록된 제출처로 서류를 바로 전달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네이버는 AI 브리핑 기술을 활용해 증명서 종류 차이나 발급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안내 정보 출처도 함께 제시한다.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연계해 제공

하며 예약 이후 주변 음식점 추천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국민비서 구베'를 통해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AI 국민비서는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모델을 적용해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에이전트 빌드'를 활용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AI 에이전트 형태로 구현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팅창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줘"라고 입력하면 AI 국민비서가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연결한다. "근처 공공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싶다"는 요청에는 공유누리 시스템과 연동해 검색과 예약을 한 번에 처리한다.

현재 두 서비스 모두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조화와 예약 기능을 지원한다.

양사는 향후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네이버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과 연계해 공공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KTX와 SRT 승차권 등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와 연계를 확대하고 음성 인터페이스 도입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LG CNS, 로봇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확대

### 美 기업 텍스메이트에 전략적 투자 휠 기반 하체 구조... 산업현장 유리

LG CNS는 산업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로봇 기업 텍스메이트(Dexmate)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LG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이뤄졌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텍스메이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로봇 브레인 개발 기업들이 연구용 표준 하드웨어로 채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텍스메이트의 로봇은 인간형 로봇의 작업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다리 대신 휠 기반 하체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로봇은 휠 기반 하체와 고속 작업에



LG CNS가 텍스메이트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트레이닝 시키는 모습을 시로 생성한 이미지. /LG CNS

특화된 양팔, 비전 센서를 탑재한 머리로 구성돼 있으며 36개 이상의 '자유도'를 기반으로 정밀한 양손 협동 작업이 가능하다. 양팔 기준 약 15kg의 적재 하중을 지원하며 한 번 충전으로 20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대비 안정적인 하체 구조를 갖춰 물류센터와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 적용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LG CNS는 이번 투자로 이족보행 휴

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에 이어 휠 기반 휴머노이드까지 확보하며 로봇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향후 하드웨어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운영·학습 플랫폼을 결합한 '폴스택 RX 서비스'를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 CNS는 로봇 운영·학습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와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로봇 브레인 개발 기업 스킵드AI에 투자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 맞춤형 RFM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물류·유통·제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개념검증(PoC)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학습된 로봇이 물류센터와 제조공장에서 물건을 적재·분류하거나 선박 조립 상태와 품질을 검사하는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네이버 D2SF, 로봇 스타트업 2곳 투자

### 카멜레온·애니웨어 로보틱스

네이버 D2SF는 호텔 하우스키핑 로봇을 개발하는 카멜레온과 물류 자동화 로봇 기업 애니웨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자동화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카멜레온은 복미 호텔 하우스키핑 업무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복미 호텔 산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장실 청소와 객실 정리 등 하우스키핑 업무는 작업 구조가 복잡해 상용화된 로봇 솔루션이 많지 않았다.

카멜레온은 네트워크 환경이나 호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어 현장 도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

다. 카멜레온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잠재 고객을 확보했으며 올해 2분기 화장실 청소 업무에 특화된 시제품을 개발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물류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물류 산업에서는 트럭 하역 등 작업 강도가 높아 자동화 수요가 높지만 작업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로봇 도입이 쉽지 않았다.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실제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작업 속도와 수행 범위를 최적화했다. 단일 로봇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확장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 애니웨어 로보틱스는 글로벌 로봇 기업 파나와 물류 기업 새틀 크릭 등과 협업하며 현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검증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 과기부, 민·관 합작 'AI컴퓨팅 센터' 구축

### 우선협상대상자에 삼성SDS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투자와 민간 자본을 결합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는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삼성SDS를 주

관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클러쉬, KT,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술·정책 평가를 진행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출자와 대출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금융 심사를 실시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두 절차를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사업 부지로 제안했

으며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등) 약 1만5000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지원,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대, 글로벌 기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정책금융기관, 삼성SDS 컨소시엄은 SPC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 민관 권리·의무 관계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종 출자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확정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올해 3분기 착공해 2028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LG U+,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선정

### 2년 연속 포함... 최고등급 획득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평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약 2만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평가하는 글로벌 환경 평가 기관이다. 기업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배출 관리 체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CDP 평가에서 국내 상위 5개 기업에만 수여되는 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평가에서 최

고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아너스 클럽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 획득과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KSSB) 기후 관련 공시 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하며 기후 변화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왔다.

회사는 향후 전력 사용량 절감과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